

The Logic Basic

By Jack

2. Q&A로 알아보는 논술 상식

2-1) 논술이란?

-> 논술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주장과 근거가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논술은 대학 입학에 위한 논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제시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해야 할 논술이란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제시문과 문제에 맞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2-2) 논술에서는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 최근의 논술은 예전과는 달리 학교 측의 원하는 답이 있는 방식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도록 채점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창의력’, ‘독창성’이라는 단어에 너무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경향 때문에 자신만의 창조성을 너무 고집하는 것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자신의 독창적 주장과 근거, 답안의 구조를 써내려가되 중요한 것은 합리성입니다. 일반적 평균인이 답안을 보았을 때 그 답안이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한다는 점입니다.

2-3) 우선선발이 폐지되었는데?

-> 우선선발과 일반선발로 나뉘어 합격생을 선발하던 예전보다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기회의 폭이 넓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측에서 제시하는 최저기준만 맞춘다면 그 뒤에는 논술고사의 성적만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리기 때문에 수능성적의 중요성은 줄고 논술의 중요성이 늘었습니다. (한양대의 경우 수능 최저기준조차 폐지했습니다.) 자신의 수능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논술로써 뒤집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논술의 중요성을 빨리 깨닫고 수능과 병행하여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한편, 상위권 학생들도 예전과는 달리 수능성적만 믿고 논술을 대충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논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2-4) 논술은 어느 정도 공부해야 할까요? 그리고 꼭 해야 할까요?

-> 모든 강사들이 일주일 네 시간을 권장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대학교에서도 네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논술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네 시간으로는 부

족합니다. 처음 논술을 접하는 학생들은 논술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논술을 제대로 준비하는 학생이 드물기 때문에 논술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공부해야하는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논술 문제를 접하면 접할수록 더 커집니다. 제시문이 비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글을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다 보니 문제 하나를 푸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 계속 논술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중간쯤 가면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논술을 어려워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이러한 낮습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지혜롭게 이러한 단계를 잘 극복해야합니다. 초반에는 일주일에 10~15시간정도를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술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 보통 10~15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공부시간이 부담된다면 논술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수능은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논술은 대응해도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논술을 어영부영 공부할 것이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수능공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논술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능으로만 대학에 갈 수 있는 비율은 3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시가 70%에 육박하는 현재 논술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반드시 논술을 준비하라, 단 수능과 같이 병행해서 끝까지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술로 대학가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모두 수능을 준비하지만, 모두 논술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논술은 그 중 교과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거나 수능만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뺀 나머지 인원만이 준비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 경쟁률이 수능에 비할 바 못됩니다. 겉보기에 40:1, 50:1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허수입니다. 이번 2015학년도 논술고사를 살펴보면 최저등급에서 40~50%가 걸러졌습니다.(우선선발이 폐지됨에 따라 최저기준이 상승했기 때문에 걸러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도 논술을 제대로 준비한 학생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기준을 충족하였고 논술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경쟁하면 실질적 경쟁률은 1:3 ~ 1:5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 수시를 억지로 넣어보는 경우, 즉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아니라 진지하게 논술로 대학 진학을 원하는 경우면 논술에 시간 투자가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택은 학생들한테 맡겨야하는 것이겠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솔직하게 교과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학생은 소수입니다. 지금 이 책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학생부가 썩 좋지 않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은 것은 논술과 수능입니다. 3. 2015학년도 기준 주요대학 논술 전형분석에서도 나오겠지만 논술전형에서는 학생부기록(교과 or 비교과)의 반영 비율이 실질적으로 0에 수렴합니다. 그런데도 수능만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 아닐까요.

3. 2015학년도 기존 주요대학 논술 전형 분석

The Logic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는 수능실력과 논술실력을 동시에 갖춰야 논술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다. 수능 최저등급을 맞추는 것이 결코 수월하지 않으며, 논술실력도 수준급이어야 한다. 따라서 연고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라면, 논술과 수능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서강대학교는 타대학교에 비해 논술을 제대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적은편이다. 또한 경쟁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제시문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이기에 공부하기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노력불만한 학교라고 할 수 있다. 가이드북도 충실히 매년 나오는 편이기에 논술을 적은 시간밖에 투자할 수 없다면 이 대학을 추천한다.

성균관대학교는 논술로 뽑는 인원이 굉장히 많으며, 수시 모집 인원의 50%이상을 논술에서 뽑는다. 따라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면 반드시 이 학교에 지원해보기를 바란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고대에 비해서 논술 난이도가 쉽고 수능이후의 대학이라는 점에서 준비를 비교적 천천히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양대의 경우 수능 최저기준이 올해 폐지되었다. 그리고 한양대 논술은 인문과 상경으로 나뉘는데 올해는 인문에 엄청난 숫자의 학생이 몰렸다. 한양대 수리논술이 굉장히 악명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경계열에 지원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인문을 준비하려는 학생은 아주 철저히 채점 기준표를 분석해서 여러 번 고쳐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최저기준이 없기 때문에 논술만 준비한 학생들이 대거 몰려 거의 완벽한 답안을 써야만 합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경계열을 준비하려는 학생은 수리논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합불이 여기에서 갈리기 때문이다.

중앙대의 경우 전형적인 문제유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북만 충실히 보고 연습한다면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서강대와 마찬가지로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합격을 기대해볼 수 있는 학교라 할 수 있겠다.

연고서성한중 논술 전형 모집인원 - 5186명

연고서성한중 정시 전형 모집인원 - 5326명

※ 표로 살펴보는 대학별 논술전형 간략 비교.

학교명	논술인원	정시인원	최저기준	성적반영비율
연세대	738명	986명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합 6등급 이내	논술 70% + 학생부 30% (교과 20, 비교과 10)
고려대	1227명	1042명	경영, 정경, 자유전공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합 5등급 이내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각각 2등급 이내	논술 45 % + 학생부 55% (교과 45 ,비교과 10)
서강대	468명	554명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영역 각각 2등급 이내	논술 60% + 학생부 40% (교과20, 비교과 20)
성균관대	1171명	903명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영역 등급 합 6 이내	논술 60% + 학생부 40%
한양대	583명	823명	수능최저기준 없음	논술 50% + 학생부 50% (학생부 종합 평가)
중앙대	981명	1018명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논술 60% + 학생부 40% (교과 20, 비교과 20)

3-1) 연세대 분석

연세대의 경우 논술로 738명을 선발합니다. 정시모집인원은 986명입니다. 그리고 국영수탐 합이 6등급 이내이고, 탐구는 상위 등급을 기록한 1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꽤 기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과목에서 3등급을 받는다면 나머지 과목들에서는 모두 1등급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논술이 70%, 교과가 20%, 비교과가 10%로 반영이 됩니다.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로 나누어지는데 출결은 무단결석이 3일 이하일 경우 만점을 받고, 봉사활동은 20시간 이상을 채웠을 경우 만점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과는 1등급에 20점, 2등급부터는 1등급의 20점에서 0.2점씩을 감합니다. 7등급부터는 꽤 큰 패널티가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20	19.8	19.6	19.4	19.2	19	18	16	12

대부분 학생들의 성적이 1~6등급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논술 100%의 전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는 기본적으로 통합교과형, 다면사고형 논술을 출제합니다. 2011학년도 논술문제가 최신 개정판이니 이 기출문제부터 풀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인문과 사회로 나누어지는데, 인문과 사회는 문제 내용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사장 부족으로 인해 임의로 나눈 것에 불과하니 자신이 인문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계열의 기출을 풀어봐야 하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면사고형이기 때문에 각각의 제시문이 하나의 사회현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비교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문제는 2문제이며,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문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나머지설명을 하겠습니다.

2015학년도 연세대학교 모의논술 문제(인문계열)

제시문 (가)

가장 놀라운 사실은 로마사회가 단 한 순간도 노예제도 자체를 문제 삼거나 유연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예를 결혼시키도록 허락한 일은 바람직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이것이 노예에 대한 흉포한 처벌, 형편없는 음식, 물질적·도덕적 고통, 횡포까지 바꾸어놓을 수는 없었다. 스토아학파를 비롯한 윤리주의자들도 특별히 더 나은 것은 없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눈에 노예제도는 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적인 불행이었으며,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불행을 맞이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불행한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운명의 여신이 부리는 변덕에 이리저리 휩쓸리기 때문이다. 가장 고귀한 사람도 전시(戰時)에는 노예상태로 떨어질 수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운명의 여신의 손에 놀아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한 사람의 의무는 무엇인가? 왕이건 시민이건 또는 노예이건 자기 운명에 따라 타고난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주인의 운명을 타고 났다면 그에 따라 훌륭한 주인 노릇을 해야 진정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로마인들은 언제나 나쁜 주인이나 나쁜 남편보다는 훌륭한 주인이나 훌륭한 남편을 더욱 좋게 평가했다. 철학은 이처럼 특징인이 가진 장점을 현명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로 제시했다. 그래서 세네카

는 제자들에게 노예로 태어난 ‘비천한 친구들’의 훌륭한 주인 노릇을 하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만약 그가 노예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었다면 그들에게도 역시 훌륭한 노예로 행동하도록 가르쳤을 것이다. 성 바울과 에픽테토스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제시문 (나)

저녁 밥상을 물려 가려는데 남편이 불렀다.

“잠시만 앉으오. 내가 할 이야기가 있소.” 남편은 말 꺼내기가 어려운 듯 잠시 묵묵히 있었다.

“나는 다시 출유(出遊)¹⁾하려 하오. 그러니 당신은 이 집을 정리하고 수레별 큰택에 몸을 의탁해 있으시오. 이미 사촌 큰형님과 상의해 두었소.”

“집을 판다면……아주 안 돌아오십니까?”

“나도 모르오. 내 뜻이 이곳에 없으니 장담하기 어렵소.”

“그렇다면 차라리 저와 절연하지지요.”

“무슨 해피망측한 소릴 하오? 우린 혼인한 사이인데, 그걸 어찌 쉽게 깨뜨린단 말이오? 사람에게겐 신의가 중요한 것이오.”

“남자들은 저 편리한 대로 신의니 뭐니 하더군요. 우리가 혼인한 것이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어찌 그 약속이 여자 홀로 지켜야 할 것입니까? 당신이 그걸 저버리고 절 돌보지 않으니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할 상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전 차라리 팔자를 고쳤으면 합니다.”

“사대부 집 아녀자가 어찌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오. 당신이 인륜을 저버리고 예의, 염치도 모르리라곤 생각지 않소.”

“인륜? 예의? 염치? 그게 무엇이지요? 하루 종일 무릎이 시도록 웅크리고 앉아 바느질하는 게 인륜입니까? 남편이야 무슨 짓을 하든 서숙(黍粟)²⁾이라도 꾸어다 조식봉양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 술친구 대접까지 해야 그게 예의라는 말입니까?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염치를 아는 겁니까? 아무리 굶주려도 낱 소리 못하고 눈이 짓무르도록 바느질을 하고 그러다 아무 쓸모없는 노파가 되어 죽는 게 인륜이라는 거지요? 난 터무니없는 짓 않겠습니다. 분명 하늘이 사람을 내실 때 행복하게 살며 번성하라고 내셨지, 어찌 누구는 밤낮 서럽게 기다리고 굶주리다 자식도 없이 죽어버리라고 하셨겠는가 말예요.” 1) 다른 곳으로 나가서 놀 2) 기장과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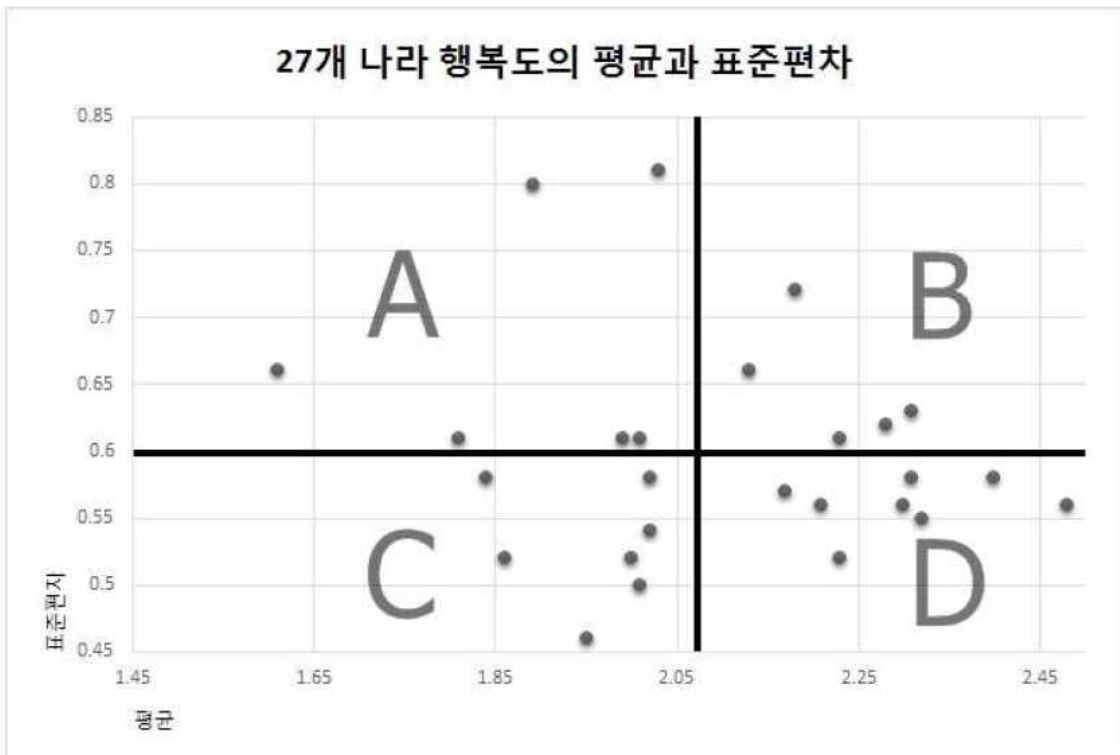
제시문 (다)

공리(utility)의 원리는 우리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승인하고 거부하는 원리이다. 즉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란 개인의 온갖 사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공리는 어떤 것이든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에게 혜택, 이점, 쾌락, 선, 행복을 가져다주거나 불운, 고통, 악,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속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당사자가 특정 개인인 경우는 그 개인의 행복을 뜻하며,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일 경우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다. 그렇다면 여러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란 무엇인가? 어떤 일이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그것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쾌락의 합

계를 증가시키거나 고통의 합계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구성원들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전체 구성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쾌락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도 큰 경우, 이는 공리의 원리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개인의 승인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다시 말해 공리의 법칙에 상응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그 개인은 공리의 원리를 좇는다고 할 수 있다.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항상 우리는 그 행위가 해야 할 행위라고, 또는 적어도 하면 안 될 행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그 행위를 행하는 것이 옳다든가, 적어도 그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행위는 옳은 행위다, 또는 적어도 그른 행위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때, ‘해야 할’, ‘옳은’, ‘그른’ 등의 딱지가 붙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무의미한 것이다.

제시문 (라)

아래의 그림은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 국민들의 행복도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도표로 요약한 것이다. 이 설문조사는 각국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가를 묻고, 그 응답을 1점(행복하지 않다), 2점(보통이다), 3점(행복하다)으로 측정하였다. 도표에서 X축은 행복도 점수의 산술평균*을 보여주며, Y축은 행복도 점수의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또한 X축과 Y축은 각각의 산술평균에서 교차하고 있다 (X축의 산술평균은 2.07이며 Y축의 산술평균은 0.6이다). * ‘산술평균’이란 응답자들이 답한 점수를 모두 합하여 응답자들의 수로 나누어준 값이다. ** ‘표준편차’란 응답자들이 답한 점수가 산술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한다. a국가와 b국가의 행복도 점수의 평균은 같은데 a국가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면, a국가 국민들의 행복도 정도는 더 넓게 분포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 1>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입장을 근거로 삼아, 제시문 (라)의 도표에 나타난 국가군 B와 C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지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 1번 문제에 대한 간략한 분석 >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하나의 사회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는 것이 연세대의 전형적 1번 문제입니다. 비교라 함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는 것인데, 사실 연세대 논술에서 비교는 차이점을 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면사고형을 취하기 때문에 각각의 제시문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은 대주제로 초반에 잡아주면 충분합니다.

예) 제시문 (가), (나), (다)는 개인의 행복이 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주제 - 공통점 설정 - 연세대 채점기준)

그리고 차이점을 논할 때는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이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 개의 제시문이 각각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이들의 차이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을 드러낼 때 전형적인 풀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제시문을 두 제시문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두 제시문의 차이점을 일정한 기준으로 드러냅니다.

예)

- ① 제시문 1은 A를 하나, 제시문 2 와 3은 B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② 제시문 1이 A를 한다는 점에 대한 근거와 제시문 1에 대한 부연설명(제시문 1은 더 이상 적을 기회가 없으므로)
- ③ 제시문 2와 3이 B를 한다는 점에 대한 근거
- ④ 그러나 제시문 2는 B-1을 하나 제시문 3은 B-2를 한다는데 차이가 있다.
- ⑤ 제시문 2가 B-1을하고, 제시문 3이 B-2를 하는 근거.

1번 문제에 대한 전형적인 답안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주제 설정 - 공통점)** 그러나 (가)는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나)와 (다)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제시문과 두 제시문을 나눔 -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두괄식으로 밝힘)**

(가)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사회적 지위를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고귀한 사람도 노예가 될 수 있는 등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의 여신에 의해 사회적 위치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 또는 체제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순응 속에서 타인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자각하고 자신의 직분을 다 할 때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제시문 (가)가 개인의 행복이 타인에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와 나머지 부가 설명 - 더 이상은 제시문 (가)의 내용이 나올 기회가 없으므로)

(나)에서 부인은 남편이 행복을 위해 가정을 떠나는 것이 자신에게 불행으로 돌아올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존여비의 유교적 사상에 저항하려는데, 이는 사회체제에 대항하여서라도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는 것으로서 (가)의 사회체제에 순응하여 행복을 찾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다)에서는 공동의 이익이 우선되어야하므로 개인적 행복과 더불어 타인의 행복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시문 (나)와 (다)가 (가)와는 달리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간략하게 - 왜냐하면 두 제시문의 차이를 논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하지만 (나)와 (다)에도 차이점이 존재한다. (나)는 공동체의 행복보다 개인의 행복, 즉 행복의 형평성을 중시하는데 반하여 (다)는 공동체의 행복을 우선시한다.

(두 제시문에 대한 차이점을 두괄식으로 드러냄)

(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그 구성원인 개인의 행복이 증가해야함을 말하면서도, 공동체의 이익이 늘어난다면 개인의 행복은 일정 부분 유보될 수 있음을 말하는 듯하다.

(나)의 부인은 가정의 행복의 총합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편과 언쟁을 벌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는 남편이 집을 떠남으로써 남편의 행복이 부인의 불행보다 더 커진다면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두 제시문의 차이점에 대한 근거)

< 2번 문제에 대한 간략한 분석 >

2번 문제는 1번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1번 문제에서 밝혀낸 각각의 제시문의 입장에서 자료로 된 제시문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때 1번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은 간략하게만 적어주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위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모의 논술 문제를 예로 들면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입장을 근거로 삼아, 제시문 (라)의 도표에 나타난 국가군 B와 C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지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라는 것이 문제인데, 제시문 (나)와 (다)의 입장은 이미 나왔으므로 간략하게만 적어주고 제시문 (라)의 도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그에 대한 평가를 다면적으로 해야합니다.

2번 문제에 대한 전형적인 답안

제시문 (나)는 행복의 형평성을 중요시하지만 (다)는 각 개인의 행복의 총합인 공리를 중요시한다. **(간략하게)** 제시문 (라)의 B국가군은 국민들의 행복의 총합인 공리가 크지만 불평등의 정도가 심하다. 행복의 산술적 평균은 높지만,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C국가군은 행복의 총합인 공리가 작지만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다. 행복의 산술적 평균은 낮지만, 편차가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A는 행복도가 적고 편차도 큰 국가군이고, D는 행복도가 높고 편차도 작은 국가군이다. **(도표의 자료를 보기 쉽고 명확하게 해석)**

먼저, (나)와 (다) 모두 네 개의 국가군 중에서 D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군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D국가군이 행복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행복도가 높았기 때문에 (나)가 긍정할 것이며, D국가군이 국민들 행복의 총합인 공리의 평균이 B보다도 높기 때문에 D국가군의 공리가 네 국가군 중에 가장 높아서 (다) 또한 긍정할 것이다.

하지만 B와 C의 국가군에 대한 각 제시문들의 평가는 다를 것이다. (나)는 C국가군을 B국가군보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나, (다)는 B국가군을 C국가군보다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의 부인은 남편이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가정을 떠남으로써 부인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을 거부한다. 이는 구성원들의 행복의 전체적 총합보다는 행복의 형평을 고려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행복의 산술평균이 다소 낮더라도 편차가 작아서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는 C국가군을 B국가군보다 더 이상적이라 생각할 것이다.

(다)는 공리, 즉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 입장에 의하면 일부 구성원들의 이익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사회적 이익의 총합이 이전보다 더 커진다면 이는 옳은 행위이다. 따라서 형평성이 다소 낮더라도 산술평균이 더 커서 사회 전체적 이익의 크기가 더 큰 B를 C보다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3-2) 고려대 분석

고려대의 경우 정시선발인원보다 200명가량 많은 1227명을 선발합니다. 경영, 정경, 자전은 국/영/수 등급 합이 5등급 이내기 때문에 수능에 자신이 없는 학생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위 3가지를 뺀 나머지는 인문계열로 분류되고 이에 대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영/수/탐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입니다. 연세대와는 달리 탐구는 2과목의 평균등급을 의미합니다. 논술 45%, 교과 45%, 비교과 10%를 반영합니다. 비교과는 1. 사고(무단)결석일수 2일 이내 2. 봉사활동 40시간 이상 3. 수상경력 3개 이상 중 3개의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 시 A로 분류해서 만점을 주는데 보통의 학생들은 1번과 2번을 충족하여 A로 만점을 받습니다. 교과의 반영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발표한 적은 없으나 원 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의 지표를 모두 활용하고 과목별 표준화 점수를 활용한다는 점을 볼 때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반영비율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고려대논술의 경우 인문논술과 수리논술이 출제되는데, 인문논술은 1문제를 출제하며 그 배점은 75점이고, 수리논술은 3-4문제를 출제하며 그 배점은 25점입니다.

< 인문 논술에 대한 간략한 분석 >

고려대 논술은 2015년도를 기점으로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의 내용은 고려대 논술 위원장의 말을 빌리자면 ‘기존의 논술이 완성된 요리를 주고 그 요리에 사용된 재료를 찾아 내라는 것이었다면, 2015년 새롭게 개정된 고려대 논술은 학생들에게 재료를 주고 재료의 쓰임을 고려하여 요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려대 입학 홈페이지의 논술특강과 2015 모의 논술 자료집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2015 모의논술자료집]

이전의 고려대학교 논술고사는 요리사들이 정성껏 만든 서너 가지의 요리를 상에 차려 수험생들에게 보여주고 다음과 같은 명시적인 혹은 암묵적인 질문에 대한 수험생의 답

을 평가하려 하였다.

- 각 요리에 들어간 재료들은 무엇인가
- 재료들이 어떤 비율로 배합되었는가
- 각 재료들이 상에 차려진 전체 요리에서 담당하는 맛은 어떤 것인가
- 각 재료들이 다른 재료들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 상에 차려진 전체 요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
- 그 요리에 대해 수험생은 어떤 평을 내리고 있는가

2015학년도 논술고사는 이 과정의 역(逆)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만들어진 요리 대신 수험생은 요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재료들을 제공받는다. 수험생은 이 재료들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고, 평가자는 그 요리의 맛을 평가한다. 다시 말하면, 2015학년도 논술고사의 출제진은 다음과 같은 평가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논술 문제를 구성할 것이다.

- 제공된 재료들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 제공된 재료들 중 어떤 것을 사용하였는가
- 선택한 재료들을 어떤 비율로 배합하였는가
- 요리를 어떤 식으로 상에 차려 내놓았는가
- 요리가 남의 것과 다른 독창적인 맛이 있는가
- 요리가 정말 맛있는가
- 미리 마련해 놓은 식탁에 어울리는 요리를 만들었는가

꽤나 모호한 설명이라 생각하기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4년 논술 기출문제와 비교해보겠습니다.

2014년 기출문제

I. ①의 세 의견을 활용하여 ②와 ③을 설명하고, 그 세 의견 각각의 장단점에 주목하여 평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십시오. (75점)

2015년 모의문제

I. ①과 ②를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관해 논술하십시오. (75점)

I. ①과 ②를 활용하여 ‘관행과 사회변화’에 관해 논술하십시오. (75점)

기존의 기출 문제가 최종 목적지를 설정해놓고, 그 최종 목적지에 어떤 장소를 경유해서 도착해야하는지를 가르쳐주었다면, 2015년에 개정된 논술문제는 최종 목적지만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학생이 그 목적지까지 차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상관 없습니다. 큰 틀에서 자신만의 독창성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답안을 작성하지 않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 제시문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 요약이 아닌 ‘활용’이 필요

② 제시문을 주제에 맞춰서 편집한다.

-> 자신의 주제에 제시문을 맞춰서 활용할 것

③ 제시문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찾는다.

-> 논리적 연관관계를 찾아서 두 제시문을 연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재료로써 제시문들을 활용할 것

④ 제시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 제시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근거로써 제시문을 밝힐 것

⑤ 제시문의 주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쓴다.

-> 일반화, 추상화 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언어로 제시문의 문장을 표현할 것.

고려대 논술 평가 기준
ㄱ) 글의 내용 주어진 글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활용’하여 ‘사회발전’ 혹은 ‘관행과 사회변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 를 진술하고 있으며, 그 견해가 창의적이고 설득력 이 있는가
ㄴ) 글의 구성과 표현 ① 글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이 있는가 ② 논술문의 기본 구성인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 을 잘 따르고 있는가 ③ 문장이 유려 하며, 수준 높은 어휘 를 사용하고, 다양하고 풍부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가
ㄷ) 글의 형식 맞춤법,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등이 적절한가

고려대논술은 다른 학교들의 논술과 달리 학교 측이 원하는 답안을 작성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잘 쓴 글을 작성하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전형적 구조인 서론-본론-결론형식을 따라 글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괄식이든 미괄식이든 상관없습니다. 학교 측에서 제시한 우수답안들을 분석해보면 서론에서는 각 제시문들의 주제와 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한 논증을 설득력 있는 근거로서 전개하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 - 고려대가 선정한 우수답안]
[서론 - 제시문들의 주제와 글의 방향 제시] 제시문 ①은 기술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사회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도록 하는 요소를 설명하고 있고, 이와는 달리 제시문 ②는 제도적 측면에서 잘못된 제도의 문제점과 올바른 제도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본론 -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한 논증을 설득력 있는 근거로써 전개] 이를 토대로 논하면, 사회발전은 기술을 개발, 수용하여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제도

의 수립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실현시킬 때에 가능해진다. 그리고 대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상승시켜 주는 기술은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제도 또한 정의나 공정함과 같은 뜻을 확고히 하면 올바르게 수립되어진다.

그러나 기득권층의 과도한 이익 추구는 위와 같은 기술의 수용과 제도의 수립을 방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시문 ①에서의 ‘타자 자판기’와 ‘전기 조명’은 사회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기술임에도 기득권층의 경제적 이익 생산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제시문 ②에서의 문제 상황 역시 제도를 수립하는 기득권이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이기적인 이익 추구가 사회발전을 좌절시키는 장애물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모래시계형 사회구조, 사회의 양립화를 발생시키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또다시 기술의 수용과 정당한 제도의 수립을 방해하여 사회의 발전을 저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것이다.

[결론 -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를 바라보는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 즉, 사회를 변화시킬 때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시민, 대중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모습이 보편화 된다면 사회는 그 스스로가 가장 능률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추구하여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통, 관습이라고 이어져 오는 올바르지 못한 사회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 수리 논술에 대한 간략한 분석 >

인문논술은 꽤 큰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고려대는 수리논술에 관하여는 2015년에도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점도 25점으로 동일하고(인문논술은 25점), 문항도 3개로 기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수리논술에 대한 대비는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수리논술에서 인문논술과 연관되는 수학적 문제를 제시하고 그 것을 글로 풀어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려대 수리논술 문제는 수학적 실력을 검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학으로 표현된 상황을 글로써 풀어내어 설명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올해 모의논술 자료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의 사회현상을 숫자를 활용하여 쉽게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 2015 모의논술자료집]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리논술’ 부분이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수리논술’부분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수험생의 수학(數學)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리논술’을 위해 수험생이 필요로 하는 수학 과목 실력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넘지 않는다. ‘수리논술’의 목적은 인간 및 사회 현상을 수리적(양적)으로 분석하는 글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질문에 맞추어 수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학 과목 실력보다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수학적(양적) 관계를 통해 표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통합형 논술’의 취지에 따라, **‘수리논술’ 부분은 ‘언어논술’ 부**

분에서 다루는 주제와 밀접하게 혹은 느슨하게나마 연결된 주제를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논리적 비약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의 논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종 학생들은 수리논술이라는 표현 때문에 수학실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숫자로만 문제에 대한 답을 풀어내고 그에 대한 과정이나 설명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학적 실력이 아닌 그 답안이 도출되는 논리와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리 논술 문제 3문제는 종합적 사고를 통해 누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1번, 2번, 3번 문제에 대한 답을 각각 내릴 것이 아니라 2번은 1번에 대한 답을 통해, 3번은 1, 2번에 대한 답을 통해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합니다.

[참고 - 2015 모의논술자료집]

부족사례로 열거된 두 경우 모두 제시문과 논제를 잘못 이해하였다. 제시문에서 사용자 수에 따른 추가 편익이 있다고 하였는데, 두 사례 모두 앱B의 추가 편익을 앱 A의 사용자 수로 계산하였다. 그 때문에 이후의 추론이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사례 2의 경우, 소문제 3에 대한 논술에서, 앱 C를 사용할 때 사용자 수에 따른 추가 편익이 전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제시문을 누적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결과이다.** 제시문은 편익을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제시문 (가)에서 만족감을 제시하고, (나)에서 사용자에 따른 추가적인 편익을 제시했다. 따라서 (다)에서는 사용자 수에 따른 추가적인 편익을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3-3) 서강대 분석

서강대는 논술로 468명을 선발합니다. 정시인원은 554명입니다. 국/수/영/탐 중 3개 영역이 각각 2등급이내가 되어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합니다. (탐구는 2개의 평균이 2등급이내 - 1/3 or 2/2 등) 학생부에서는 교과가 20%, 비교과가 20% 반영됩니다. 둘 다 정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교과에서 학년별 가중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학교는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비교과는 출결 및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다른 학교들과 같은 기준이기에 대부분의 학생이 만점을 받을 것입니다.

인문 사회 계열은 2문제가 출제되며, 수리논술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반영 비율은 50%, 50%이고 둘 다 글자 수는 800~900자를 원합니다. 시험시간은 100분입니다. 서강대의 경우 자신의 생각을 잘 쓰는 것보다 제시문의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중앙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비교, 요약형의 전형적인 논술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 문제로는 자료해석형 문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학생들의 점수가 크게 갈리니 시험 시간은 첫째 문제에 40분, 둘째 문제에 60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문의 수가 많은데 반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서강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시간에 쫓겨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안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고사장에서 나옵니다.

3-4) 성균관대 분석

성균관대는 논술로 1171명을 선발합니다. 정시모집인원이 903명인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국/구/영/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이내여야 합니다. 성균관대 논술고사는 전통적으로 수능을 친 그 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영비율은 논술 60%, 학생부 40%입니다만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논술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 중 상위 10개 과목만 석차등급으로 반영,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모두에 대해 비교내신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재수생은 내신을 아예 안보고 논술로써 비교내신을 정해주고 재학생도 상위 10개 과목만 석차등급으로 반영한다는 말입니다. 딴 거 볼 필요 없이 논술만 준비하면 됩니다. 성균관대논술은 정형화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이 출제되며, 요약형, 평가형, 설명형, 대안 제시형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유형에 대한 전형적 풀이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전형적 풀이방법
요약형	서로 대립하는 네 개 ~ 다섯 개의 제시문이 출제되므로 제시문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각각의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 (요약 비교)
평가형	비판형과 옹호형이 있는데, 둘 다 원리는 같으므로 각 제시문의 주장과 근거를 잘 파악한 후 근거의 설득력을 검토하면서 답안을 작성한다.
설명형	자료 분석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료형 문제를 전략적으로 많이 풀어야 고득점이 가능한 유형이다. 주로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사회 문화 모의고사의 자료 분석형 문제들을 모아서 풀어보는 것이 좋다.
대안 제시형	한 주장의 근거를 수정보완하거나 창의적으로 제 3의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이다.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주장이 나올지 모르므로 한 문제를 가지고서 수정보완형 대안과 창의적 대안을 모두 제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3-5) 한양대 분석

한양대는 올해 독자적으로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했고, 다른 학교들과 더불어 우선선발을 폐지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을 폐지하면서 심지어 수능을 치지 않는 학생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선선발의 폐지는 논술전형에 있어서 논술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전 수험생들에 비해 더 많은 기출을 풀고 첨삭을 받으며 정교하게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는 사항일터니 이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술전형의 인원은 585명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전의 입학사정관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총 정원 2924명 중

20%인 585명) 20%라서 생각보다 작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시선발인원이 823명이므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수능최저기준 폐지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만한 사항은 바로 논술고사 시간의 축소입니다. **기존 120분에서 75분으로 45분의 시간축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사고의 깊이가 있는 글을 쓰는 것을 연습하는 것보다 주어진 시간 안에 개요를 짜고 그 구조 속에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순차적으로 적는 것을 연습하는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함을 뜻합니다. 75분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시험지를 받은 후 15~25분 내에 개요를 짜고 바로 글쓰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논술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올해 한양대 논술고사의 75분 안에 글을 쓰는 연습을 기계적으로 많이 연습하지 않는다면, 답을 알고 있는데도 시간 안에 글을 완성을 시키지 못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올해 한양대의 논술고사 시험시간은 75분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이 짧습니다. 따라서 75분이라는 시간 안에 글을 완성시키는 연습을 10번 이상 하지 않으면 시험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반영 영역은 논술 50% + 학생부 50%로 선발합니다. 논술은 인문계열의 경우 1000자의 인문논술만이 출제되고, 상경계열의 경우 500자의 인문논술과 더불어 수리논술이 출제됩니다. 학생부의 반영방법은 위 입시요강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부종합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학생부 종합평가란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 여부 및 학업성취도, 적성, 인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즉, 교과 성적의 반영비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3년 당시 한양대는 1등급 300, 2등급 295, 3등급 292, 4등급 290, 5등급 288, 6등급 286이라는 점수를 부여했었고, 내신에서 큰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 올해도 이러한 흐름이 유지되거나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한양대는 3차에 걸친 모의논술을 발표했습니다.** 홈페이지에 3회 분량의 모의논술과 해설 및 평가기준, 모범답안까지 수록하고 있으니 이를 꼭 찾아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20분에서 75분으로 바뀐 시험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모의논술은 2~3번씩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3-6) 중앙대 분석

중앙대의 경우 논술전형으로 981명을 선발하며, 정시로는 1018명을 선발합니다. 최저기준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이내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계열과 경영경제계열로 논술을 나누어 실시하는데, 인문사회계열은 언어 논술형 3문항이 출제되고 경영경제계열은 언어논술형 2문항과 수리적 논술형 1문항이 출제됩니다. 수리적 논술형 1문항은 수를 활용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하기를 요구하는 고려대 수리논술과 수학적 능력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한양대 수리논술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문 논술의 경우 개정된 2015 고려대 논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완성된 구조로써 보통의 의미로 잘 쓴 글을 답안에 적기를 요구합니다.

<p>[참고 - 2015 중앙대 논술 가이드북] 서론에서는 한두 문장으로 자신이 전개하고자 하는 논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서론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시문들의 핵심 논지와 부합하지 않는 일반론인 경우, 글 전체의 전달력이 약화될 수 있다. 본론은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다.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보편타당한 논제임</p>
--

을 밝힐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본론에서도 서론처럼 자신의 주장만을 전개한다면 논술 답안에 적합하지 않다. 제시문들은 수험생들이 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제시문에서 논거를 끌어내고, 그것을 논리에 맞게 종합적으로 연결한다면 논지와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

결론은 서론과 본론을 종합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결론은 서론에서 제시된 논제에 명확한 대답을 주어야 한다. 또한 결론에서는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본론의 연장선에서 급하게 끝을 맺는 경우, 글의 마무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수험생들은 결론에 적당한 분량을 배분하여 명쾌한 결론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